

●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 개최

대한전기협회는 지난달 29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국제회의장에서 400여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제·개정을 위해 조사·연구한 내용을 홍보하고, 일부 현안사항에 관한 전력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6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전기규정(KEC) 제정 추진 계획 ▲전기설비기술기준 유지관리 현황 및 제·개정(안) ▲IEC 표준에 의한 저압전로의 지락보호 기술지침 연구 ▲가정용 연료전지 시설기준 제정에 관한 연구 ▲발전용 풍력설비 낙뢰보호에 관한 연구 ▲IEC 표준에 의한 공통·통합 접지적용에 관한 연구 ▲IEC 표준에 따른 전기설비의 피뢰시스템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 KEC 제정 관련 순회공청회 개최

대한전기협회는 지난달 8일부터 오는 8일까지 한국전기규정(KEC) 제정 계획과 개발 로드맵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차원의 지역별 순회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순회공청회는 ▲광주지역(8일) ▲대전지역(10일) ▲부산지역(15일) ▲대구지역(17일) ▲서울·경기지역(29일)에서 각각 개최됐으며, 이번 달 8일 제주지역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 박희택 회원, 총 3차례 장학금 기부

대한전기협회 개인회원인 박희택 씨가 지난 1999년과 2007년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장학금 1백만 원을 기부했다. 평소 전기협회에 깊은 애정을 보여 온 박희택 회원은 전기계 후배들의 양성에도 각별한 관심을 발휘해 왔으며, 그 간

수차례의 장학금 기부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재)대한전기협회 장학회’는 1970년 6월 전기협회와 미국 에디슨재단이 서울에서 에디슨 탄생일 기념축전을 개최하고, 그 기념으로 에디슨장학회를 설립한 것이 시초이다.

전기협회 장학회는 우리나라 전기계를 깊어지고 나갈 유능한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해 1977년, 현재 형태인 공익법인으로 새롭게 탄생하였다. 대한전기협회 장학회 이사회(이사장 박천진,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는 매년 전기 및 원자력 공학 분야의 대학 또는 대학원생과 농어촌지역 출신자, 해외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그동안 총 600여명에게 16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2011년에도 25개 대학, 25명에게 총 91,000천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한편 2011년 현재, 기금 총액은 한전 등 26개 업·단체 출연금(483,000천 원), 전기협회 출연금(125,000천 원), 박희택씨를 비롯한 개인회원 출연금(9,212천 원) 등 1,650,595천 원에 달하고 있다.

● KEPIC 인증서 수여식

대한전기협회는 지난달 17일 전기회관(중구 수표동 소재)에서 KEPIC(전력산업기술기준) 인증업체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는 박천진 상근부회장, 오재형 전무이사, 안호현 KEPIC처장 등 협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대양전기공업(주), (주)라텍, (주)성원기업이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 전기저널 편수위원회 개최

대한전기협회는 지난달 29일 전기협회 회의실에서 ‘제198차 전기저널 편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재형 위원장(전기협회 전무이사)을 비롯한 8명의 편수위원들이 참석하여, 2012년도 1, 2월호 스페셜 이슈 과제 등을 심의, 선정했다. KEA

